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과 정책의 기대효과 추정: System Dynamics 방법론 적용* **

Reinforcing Community Business Policy and Estimating Its Policy Impact: Application of System Dynamics Methodology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장지현 (충청대학교 겸임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Young-Chool Choi/Ji-Hyung Ja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main components of the community business policy from theoretical discussions and case studies on community-related policy issues and to make practical distinctions between community business policy and social enterprise and its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it attempts to estimate the effect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number of jobs created at local level, using system dynamics methodology. Regarding the first purpose of this research, it is found that community business policy differs from social enterprise and other related policies in some respects including policy objective and target. As regards the second research purpose, it is also found that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can have a significant policy effect on the jobs which can be created at local and regional level.

키워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시스템 다이내믹스

Keywords: community business, social enterprise, job creation, system dynamics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9-413-B00031).

** 이 논문은 2011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의 제587회 「정책 & 지식」 포럼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의 논문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화두는 일자리와 복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식 실업률은 2.7% 정도 수준으로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러나 공식적 개념의 실업자뿐만 아니라, 취업포기자, 취업준비자, 그리고 취업에 대해 무관심한 자 등을 포함한 소위 체감실업율은 22.7%라고 KDI에서는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경제활동 인구중 약 4백만 명 정도는 체감실업율 개념으로 본 실업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이 다 같이 노력해야할 영역이다. 일자리 창출이 민간기업부문만의 영역은 아니며, 공공부문에서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바로 지역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고 소 지역단위에서 정책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이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을 통해서 지역 내의 가용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내용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이해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침체된 지역의 활성화라는 목적하에 시행중에 있는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현황 및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탐색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정책학적 관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변수들의 조정을 통한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추정이다. 즉,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인과관계속에 있는 중요 정책변수들의 조정을 통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추구하는 일자리 수 및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이론적 논의와 연구분석의 틀

1. 개념

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 CB)는 영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업명칭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영국과 일본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출현배경과 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1980년대 대저 정부 시절 우체국이나 상점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농어촌을 위해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커뮤니티 협동조합(community cooperative)’ 또는 1981년 스코틀랜드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유한회사 “community business scotland)”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06; 충청북도, 2011: 13). 영국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커뮤니티가 주체(설립, 운영, 소유)가 되어 지역주민의 고용과 지역의 발전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조직을 총칭한다(국토연구원, 2009: 11).¹⁾

일본에서는 버블경제 붕괴 이후, 오사카를 중심으로 황폐화된 지역이 증가하는 등 일본형 이너시티(inner city)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사회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주체의 지역사업으로서 주민스스로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비즈니스로 전개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을 총칭한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노동력, 원재료, 노하우, 기술과 같은 자원을 살려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문제에 대응하고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는 커뮤니티 활성화와 활력만들기 라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7).

영국과 일본에서의 출현배경과 제 정의를 참고해볼 때,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다양한 주체의 참가와 유연한 조직형태로서 지역사회 현안(보건,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각각의 사업 특성에 따라서 다른 사업명칭을 사용하고 있듯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개념적 진화가 계속되어 있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공통적인 제 정의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들의 증가는 공공정책 영역에서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일어난 것으로 특히,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지역적 운영과 영향이라는 필수

1) 지역의 커뮤니티가 활동을 전개하는 비즈니스로 지역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비즈니스에 출자하는 지역주민이 이를 소유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 영국 대부분의 커뮤니티비즈니스는 한 명당 한 표의 권리를 갖는 회원이 소유하고, 회원을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정, 지역주민은 누구라도 부담 없는 비용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보통 의장, 사무·재무 담당을 선정하고,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비즈니스의 운영방침과 조직의 규약을 정하여 운영한다.

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국토연구원, 2009: 29).

이러한 측면에서 Communities Scotland(2002)에서는 유럽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다룬 주요 문헌에서 나타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표 1> 주요 문헌 검토에서 나타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성

특징	정 도
비영리로 운영	모 두
이윤은 소유자에게 분배되지 않으며, 커뮤니티의 이익에 재 투자 됨	모 두
자산을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공동(신탁)으로 보유	대부분
조직의 운영에 지역주민/구성원의 참여	대부분
취약계층의 사람들과 낙후한 커뮤니티의 고용선호	소 수
고용자와 커뮤니티의 삶의 질의 향상	극소수
지역 혹은 국가보다는 커뮤니티에 초점	극소수

자료 : Community Scotland(2002: 6)

국내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는 ‘희망제작소(2006)’가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연구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호소우치 노부나카’의 저서인 「우리 모두 주인 공인 커뮤니티비즈니스」를 번역, 출판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의 구체화 및 이후의 각 부처의 지역활성화 차원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최근의 국내연구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3)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적 수법을 차용하고 그 활동의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공공성), 영리성(사업성), 지역성 등의 3가지 성격을 가진 활동으로 정의하였다.²⁾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3대 개념적 핵심요소로서 사업주체, 사업대상, 사업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사업주체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주민, 주민 단체, NGO, 기업 등)가 사업주체이며 주민은 지역공동체 경영사업의 이용자인 동시에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사업대상은 영리기업과 비영리활동의 중간 영역으로서 지역만들기, 상가활성화, 특산물개발, e-마케팅, 보육, 교육, 환경, 문화, 복지, 시설운영 등 지역문제 전반을 그 대상으로 한다. 셋째, 사업방식은 기업경영방식, 적정이윤의 비

²⁾ 여기에서 지역성이란 추진주체, 활동영역, 사업목적, 자원활용, 이익환원 등의 측면에서 지역밀착성이 매우 강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영리 운영, 이익의 사회 환원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의는 마을단위 재정사업(지역개발사업) 즉, 살기좋은 지역만들기(행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활력증진사업(농식품부), 지역연고 사업(지경부)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과 사업내용이 유사하다. 마을단위 지역 개발사업은 공공재정사업으로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재정투자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재정지원이 중단되면 사업 자체도 단절되는 데 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수익성과 자립성을 본질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지속가능하다. 이 밖에도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업규모, 주민참여, 의사결정 등에서 마을 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성격상 차별화된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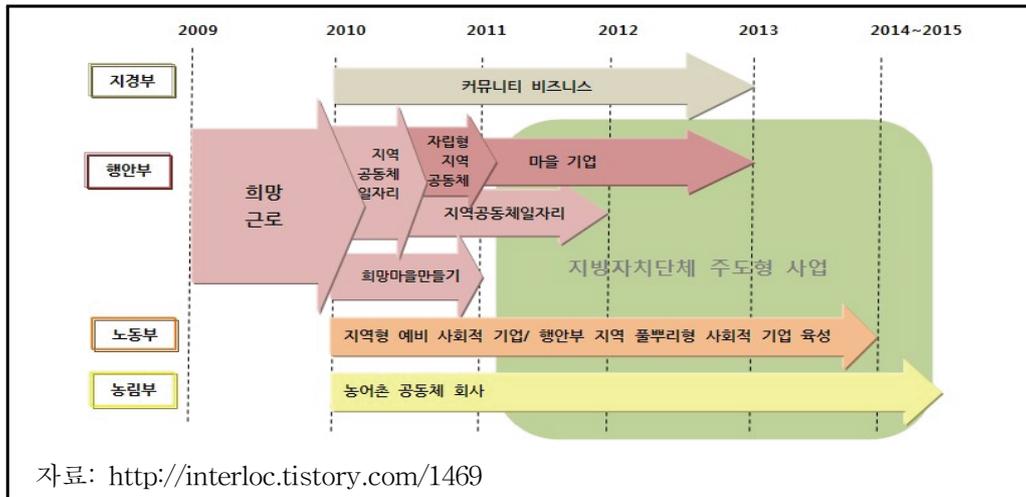
<표 2>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단위 재정사업과의 비교

구 분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단위 재정사업
주 체	- 주민, 주민공동체	- 지방자치단체
사업영역	- 공익성 + 적정규모 수익성	- 공익성 추구
성 격	- 소규모, 지역순환성, 높은 질 추구	- 중대규모, 캠페인성, 속도
지속가능성	- 일자리, 수익창출, 지속성	- 의존도 심화 - 예산 미지원시 사업단절
주민역량	- 주민참여 + 직접운영 - 주민, 지역, 지역 거버넌스	- 주민동원, 단순참여 - 관 주도 상명하달

자료 : 이소영·김선기(2010);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4) 재인용.

이상과 같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각 부처별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지식경제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농어촌공동체회사(농림수산식품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등이다(<그림 1>, <표 3> 참고).

그리고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을 비롯하여 각 부처별 사업들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은 1차 시범사업 이후 사업을 종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의 개략적인 검토를 통해 커뮤니티 비즈니스로서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그림 1> 각 부처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프로그램 추진 현황

<표 3> 부처별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사업 현황

부처	이름	개념 및 주요 사업내용
행정안전부 (2010년)	마을기업	지역공동체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 -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개칭하여 사업 확대 추진
농림수산 식품부 (2011년)	농어촌 공동체 회사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 -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고용노동부 (2007)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 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 2011년 5월 현재 532개 사회적기업 인증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점
지식경제부 (2010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자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의 형태로 해결하 는 것 -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를 설립, 시범사업 추진 - 1차 시범사업 이후 사업 종료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9); <http://interloc.tistory.com/1469> 참고 작성.

2)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뿌리적으로는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등을 발전시켜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2010년 행정안전부가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던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을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2011:1). 마을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없는 성장의 구조화, 재정건전화 기조속에서 새로운 대안 및 블루오션을 전략적 발굴·육성, 관 주도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마을기업 사업에 따른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 초래, 그리고 지역실정을 제일 잘 아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업 패러다임 전환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지자체보조)은 국비 50%, 지자체 보조 50% 지원형태를 빌어 124,000백만원의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 운영 또한 400백만원의 예산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마을기업은 2010년 전국 184개, 2011년 9월에는 516개로 대폭 증가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까지 마을기업 1,000개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표 4> 지역별 마을기업 현황 (2011년 5월말 현재)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2010	184	9	15	6	8	5	6	5	25	13	7	11	17	20	14	19	4
2011	516	66	30	32	28	18	18	9	83	43	15	28	33	37	30	37	9

자료: 김선기(2011: 7).

이러한 마을기업의 유형은 사업대상에 따라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그리고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내용은 첫째, 지역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 발굴, 둘째, 지원조직 체계구축. 셋째, 행·재정적 지원강화, 넷째,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행정안전부, 2011: 2-3).

먼저, 지역자원·수요에 기반을 둔 특성 있는 사업발굴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종 자원(향토·관광·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주민 필요에 의해 주민주도로 개발하고,³⁾ 민간시장이나 행정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특

3) 10년 향토자원 조사를 통해 발굴된 5만여개의 지역 자원 활용(www.paldomadang.com)

히, 저소득 취약계층, 재래시장 등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와 이익이 제공되는 사업) 다 품종 소량 서비스 등 보완적 틈새사업 발굴을 지원한다. 둘째, 지원조직 체계구축을 통한 지원은 행정안전부에 마을기업 자문단(지역일자리 코칭그룹)을 운영하고 시·도에는 마을기업 전문컨설팅 회사를 선정·활용하며, 시·군·구에서는 지자체, 대학교수, 회계사,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단’을 운영한다. 셋째, 행·재정적 지원으로서는 시군구-읍면동-농업기술센터 연계, 지역단위의 마을기업 거버넌스 체제 구축하고, 마케팅, 경영컨설팅 등 마을기업 자립을 위한 재정지원,⁴⁾ 시군구,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대상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지원으로서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가칭) 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마을기업 CI제작 및 우수 마을기업 선정,⁵⁾ 마을기업 홍보강화 등이다.⁶⁾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하에, 사업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행정안전부, 2011: 8).

사업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연차별 차등지원을 하며(1차년도 : 100%(50백만원), 2차년도 : 60%(30백만원)), 교육 및 컨설팅(사업비의 10%이내, 사업단체에 대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비용으로 확보), 인건비 지원은 최소화되 마을기업 CEO·간사 등 초기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은 가능하다. 이러한 사업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개시일(약정서에 정한 날)부터 12개월이며, 최장 2년간(1+1) 지원, 당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1차년도 약정 만료 전에 2차년도 사업을 재심사하여 선정한다.

3)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지역의 부존자원·문화·인력 등을 활용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활성화 사업이다. 농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자리 감소와 지역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되풀이에 따른 대응적 기제로 등장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활성화를 통한 인구유입, 복지서비스 확충 등 선순환구조가 이어질 것이며, 이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기

4) 마케팅 등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비 총 8천만원 지원(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차등지원(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새마을금고와 연계, (가칭)희망드림론 대상사업에 포함

5)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사업유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동의 브랜드를 개발, 대국민 인지도 제고, 지역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우수 마을기업 선정, 지원 강화

6) 사회적 분위기 확산 및 많은 마을단위의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론, 반상회,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지원

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농어촌 공동체회사는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서 마을단위 법인, 들녘별 경영체, 마을어업회사 등 기업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2011).

농어촌공동체회사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농어촌사회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1년 농어촌공동체회사 5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예산액은 1,485백만원이다(2010년 동일예산 집행).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까지 3000개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첫째, 농어촌 공동체회사에 대한 창업 상담,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보육센터」 지정·운영. 둘째,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방안을 강구. 셋째,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등 농림수산식품 관련사업을 연계 지원. 넷째, 공동체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정도, 자립성,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을 심사하여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활동비, 교육비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 다섯째, 교사, 예술가, 기업경영자 등 도시민들이 은퇴후 농어촌 공동체 회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웰촌포털(www.welchon.com)과 귀농·귀촌종합센터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 여섯째,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활성화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2009). 일곱째, 홍보강화 등이다. 2011년 현재, 농어촌공동체회사는 총 219개이며,⁷⁾ 선정된 조직은 향후 2년간 마케팅, 기술개발, 홍보 등을 위한 활동비로 최대 5천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11).

4)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의 감소, 급속한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확대 필요성, 2003년부터 NGO와 협력하여 실시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의 확대, 그리고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육성되었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다(고용노동부, 2010: 5).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

7) 들녘별공동체 30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835개 포함시 1,084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음

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당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으로 구분되었으나, 2010년 법률개정을 통해 지역사회공헌형을 추가함으로써,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및 관리, 간병 및 가사 지원,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의 서비스를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3조).

현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사회적기업과)과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2011년 예산총액은 1,615억원이며, 이중, 사회적기업 육성 항목에는 944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은 510억, 그리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등과 관련하여서는 161억원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1년 7월부터 상시인증제를 도입하였고, 2011년 9월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565개에 달한다.

<표 5> 지역별 사회적기업 현황(2011년 9월 기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565	129	30	28	35	24	17	18	100	33	25	17	27	21	25	25	11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http://socialenterprise.or.kr>).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용노동부, 2010: 41-43).

첫째,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을 신규고용할 경우 공모·심사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리고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4년 한도내 지원하며,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한다. 둘째,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활성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여 권역별 지원기관, 프로보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 및 상시적·지속적 컨설팅을 제공한다. 셋째, 세제지원과 관련하여 민간기업이 사회적기업(비영리에 한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 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 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처리하며,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50% 감면을 지원 받는다. 넷째,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다섯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매지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그리고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원봉사자(프로보노) 연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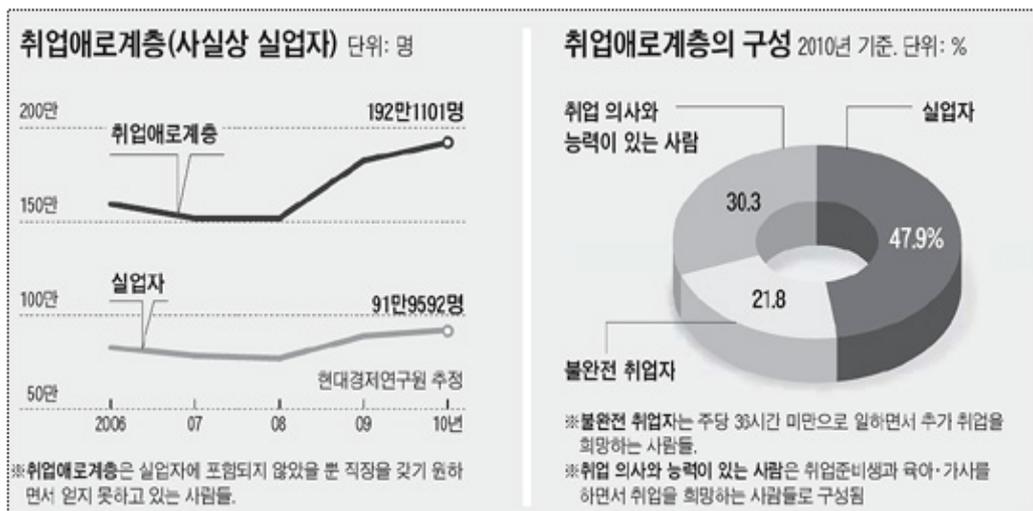
이상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적 검토,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한 우리나라 각 부처별 사업들의 검토 내용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유형 비교

구분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 지역경제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농어촌사회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인력수급정책관-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진흥원
수립예산 (2011)	124,400백만원	1,485백만원	161,500백만원
주요목적	고용창출+소득창출	일자리창출+소득창출	일자리창출+사회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지역주민 중심	농어촌주민+귀촌인	취약계층 중심
접근방식	경제적 접근	경제적 접근	복지적 접근
추진전략	지역 자원활용을 통한 고용·소득창출	농어촌 자원활용을 통한 고용·소득창출	사회서비스생산에 의한 일자리 창출
추진기관	지자체중심	정부중심	정부중심
지원형태	마을기업 자문단·지원단	창업보육센터 육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역별인증지원기관
지원내용	마케팅, 경영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비 지원, 홍보지원 등	조직·회계·마케팅, 세제 지원, 교육비지원, 모니터링 등	인건비지원, 경영·회계·노무 등 컨설팅, 세제지원, 공공기관우선구매, 네트워크 구축 등
주요유형	- 지역자원 활용형 공동체사업 -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 생활지원·복지형 공동체사업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근거법률	(가칭)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추진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가칭)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법 추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주요 대상

우리나라에 있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주요 대상은 명시화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지원 규모나 특성을 살펴 볼 때, 2010년 기준으로 약 192만명에 달하는 취업애로계층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취업애로계층이라는 실업자+사실상 실업자⁸⁾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식 실업자수에다, 일하고 싶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서 통계상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 사람, 주당 36시간 이하로 일하지만 추가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모두 더한 수자이다. 이 수치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약 192만명에 달하는데, 이는 실업자로 분류된 91만명보다 약 2배 이상에 이른다.



(자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1/2011111100196.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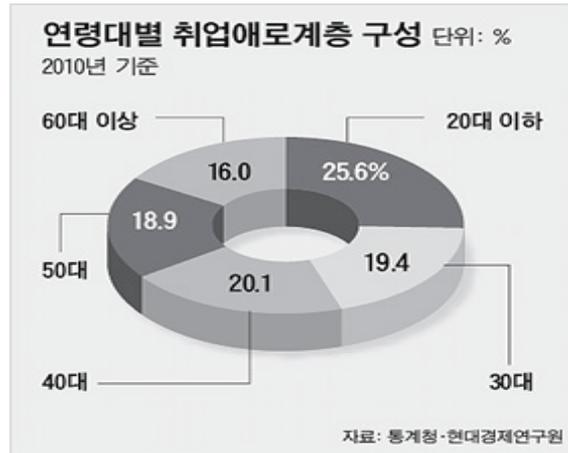
<그림 2> 취업애로계층의 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대로 보면, 비율상으로는 20대 이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40대, 30대, 50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의 경우 종업원 1인이 받는 1인당 인건비 수준이 약 100만 원 정도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수준도 이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수준의 급여체계로서 사업의 대상자를 검토해 볼 때, 20,30대보다는 40, 50,60대를 주로 타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한다. 즉, 넓은 의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주요 정책 타깃은 취업애로계층에 있는 192만 명 가운데에서 약 100 만명에 이르는

8) 2011년 10월정부의 실업자율 통계를 보면, 2.9%로서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다. 그러나, 취업애로계층 수로 포함하면, 실업율은 2배 이상으로 나타남.

4,5,60⁹⁾대의 취업애로계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1/2011111100196.html)

<그림 3> 취업애로계층의 연령대 분포

3.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한 국내의 연구동향은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하였던 용어의 제 관점, 특히, 사회적경제 범주에서의 접근,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별 접근 등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은 특히,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로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이후, 다양한 연구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기업의 출현 초기에는 유럽 및 미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례고찰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이나 함의를 도출하는 연구,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의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효과성 평가, 사회적기업의 법제도적 지원체계(인증), 사회적기업의 진단에 관한 연구 등 연구범위가 이론적이고 탐색적인 연구에서 사례중심적이고 실천적 주제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에 구체적인 모범으로서 개별법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즉, 농어촌공동체회사나 마을기업에 관한 논의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관련한 정부부처의 추진사업 동향, 제도적 필요

⁹⁾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 사업자 수는 5만 5천개, 시장규모는 약 80조원, 그리고 고용자 수는 약 80만명에 이르고 있음.

성과 개념 및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형화 등의 수준에서 논의됨으로서 각각의 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 비교,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전반적 논의들을 살펴 그 연구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 역시 사회적기업의 연구의 추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제도적 도입과 모형정립을 위한 연구들로서 정책적 당위성 및 필요성, 외국 제도의 소개, 개념적 정립을 위한 이론적 토대 구축 등에 관한 연구(조규원 외, 2011; 김혜민: 2010; 안혜원·이민규, 2010; 김윤호, 2010; 이자성, 2010; 정대용·이세호, 2008; 이석표, 2009)가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제도적 개념정립을 토대로 지역 현안과제의 해결기체로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접근법, 진단을 통한 처방적 연구(이세호, 2007; 김영수 외, 2008; 진영환·김진범, 2010; 김성진, 2010; 이민규, 2011; 권홍재, 2011; 박종안, 2011) 등이 있다.

4.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에 미치는 영향 요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영향 요인들로서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네트워크 강화, 중간조직의 육성,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개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 그리고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몇몇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 강화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체들은 스스로의 역량 뿐만 아니라 다른 자원들을 동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을 한다는 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유·무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배경이다.

둘째, 중간조직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만의 활성화 요인이 아니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공익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요구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유연하게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체에 연계시킴으로서 사업의 성공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중간지원기구의 마련과 함께 중간지원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셋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적 요인으로서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의 현안문제들과 밀접한 관

련을 갖고, 공공성 뿐만 아니라 영리성(사업성)과 지역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욕구에 대한 대응적 기제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추진주체, 활동영역, 사업 목적, 이익환원 등에서 지역밀착성을 갖추어야 하고, 일정한 수익창출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지속성을 갖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표 7>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적 요인

구분	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석표 (2009)	조규원 외 (2011)	김선기 (2011)
네트워크	· CB클러스터 주체별 역할정립		· 지역 내외 협력관계 구축 · 의사소통/정보교류 활성화	· 기업참여 유도
중간조직	· CB중간지원조직 · 매니저양성	· 중간지원기구 · 어드바이저/ 코디네이터 육성	· 정부역할 지원조직 마련을 위한 프로그램	· 중간조직 육성
프로그램	· 주민주도형 CB프로그램 도입 · 지역유희자원 발굴 · 기술력 확보	· 사업영역 발굴	· 지역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영역 확대
정부지원	· 재정조달 · 경영지원 · 인프라확충 · 업무위탁 · 활성화계획수립	· 법적근거 마련 · 창업자금지원 · 홍보/인식강화 · 적극적 주민참여	· 주민주도 실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정책목표 구체화 · 간접지원방식 전환 · 사업체 법인격 확보 유도 · CB지원조례제정 (지자체) 전담부서마련
인적자원	· 지역이해와 참여 를 유도하는 리더십	· 리더육성을 위한 교육		· 리더양성 및 교육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9: 54-71), 이석표(2009: 178-185), 조규원 외(2011: 273-277), 김선기 (2011: 16-20) 참고 작성

넷째, 정부의 지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정책적 당위성 마련 및 전국적 확산, 그리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필연적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이나 공동체가 구체적 실천 주체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업체들의 법적 위상을 정립하고, 전담조직을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체에 대한 경영, 재정적 지원도 요청되지만, 점진적으로는 간접적 지원제도를 지향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다양한 유인책 및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리더의 육성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있어 리더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의 질

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목표(가치)와 수단을 탐색,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욕구와 현장에 접맥된 실제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주체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질은 정책적 성공, 지역사회적 필요성 및 가치 인식의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5. 연구분석의 틀

1) 사례연구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분석의 틀은 두가지 관점에서 논의된다. 하나는 사례분석과 관련되며, 나머지 하나는 기대효과 추정과 관련된다. 먼저, 사례분석을 위한 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사례내용의 제한으로 인하여 충분히 세부내용을 다 다루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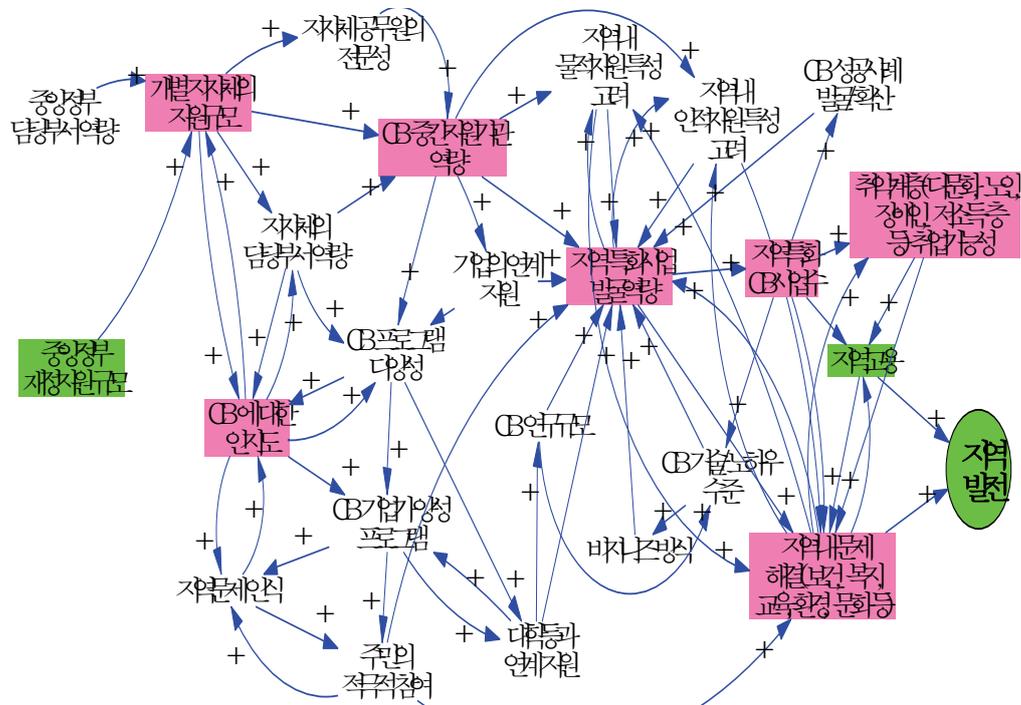
<표 8> 사례분석의 틀

항 목	세 부 내 용
기본적 현황	◦ 각각의 CB(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참여배경 및 목적
사업의 성격	◦ 사업내용 ◦ 각각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별 (세부)유형
지역사회주민 참여방식	◦ 지역주민(이해관계자) 참여현황 ◦ 고용인원 ◦ (지역주민/이해관계자) 참여방식 및 내용 ◦ 지배구조(의사결정기구 등)
지역사회 평가 및 영향	◦ 수입창출 및 소득증대 ◦ 일자리 창출 ◦ 지역협력기관(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 지방정부 등의 지원
기타 사항	◦ 애로사항 / 정부에 요구사항

2) 정책의 기대효과 추정

다음, 기대효과 추정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과 관련된 중요한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황변화를 고려해 볼 때, 정책의 목적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할 것이며,

우선,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따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관련 인과지도를 작성한다. 그 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가정하고, 이러한 변수의 변화가 지역고용 창출규모와 지역발전 변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효과 관점에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과정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는 5명의 분야¹⁰⁾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FGI, Focus Gropu Interview)방식에 의존하였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해서 CB의 효과를 가설적으로 추정해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CB의 성공요인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주요 변수들이 추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CB의 집행과 과정상의 인과지도를 그려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 CB의 주요 변수간 인과지도

10) 5명의 분야별 전문가는 지역경제학, 노동사회학, 지역개발학, 행정학 분야 전문가 및 도청의 고용창출 분야 담당자로 구성하였다. 매 단계별 파라미터 추정에 대해서 합의를 추구하되,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최대와 최소치를 제외한 값을 평균하여 추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III.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례 분석

1. 마을기업

마을기업은 2011년 현재, 전국에 516개의 기업이 선정, 운영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각각의 마을기업 유형별로 인터뷰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지역자원활용형 : 별빛산골 유학센터

‘별빛산골 유학센터’는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자원활용형 마을기업 유형에 해당된다. 별빛산골 유학센터는 경쟁, 학습위주의 생활에서 벗어나 다양한 체험활동과 농촌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삶의 행복감을 얻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인근 5개리 주민 800여명이 모여 2004년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별빛산골유학아동센터와 별빛산골유학센터를 묶어 2009년 별빛산골교육센터를 발족하였다.

폐교위기의 작은 학교가 살아나고 농촌의 교육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한편, 농촌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내용으로서는 춘천 별빛산골유학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농촌유학운영관련자(실무교사 및 농가) 기본교육 및 역량 강화교육, 도시유학생과 새롭학생들의 연계활동 및 체험활동 개발/새워 등이 해당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위원회(대표자 1인, 상근 3인)를 통해 마을기업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홈스테이 형식을 빌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2010년 마을기업을 활동을 통해 창출된 소득은 106,600천원이며, 교사 8명(상근 4명, 반상근 3명)을 채용하여 교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창출된 소득은 산골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환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별빛산골 유학센터는 (사)농촌유학전국협의회와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춘천시)로부터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별빛산골 유학센터장(운영왕)은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춘천지역 40개 공립초교 60명 이하인 학교는 9곳이고 중학교는 4곳인 만큼 농촌지역 작은 학교의 장점을 교육적 가치와 접목시켜 학교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만들려면 면춘천시와 의회가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에 나서는 한편 마을별 특성을

고려한 산골유학 유형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이 시급함”

2) 친환경녹색에너지형 : 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창원시가 경남 마을기업으로 선정한 친환경녹색에너지형의 마을기업이다. 바른 먹을거리를 생산하겠다는 신념으로 뭉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24명이 설립한 유통회사로서, 친환경농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유통구조의 변화, 그리고 노인텃밭 가꾸기에서 생산된 채소류를 매입하고 친환경여부를 확인하여 학교별로 분류 포장, 지역내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위한 생산자 조직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고 8인이 출자하였으며, 현재는 50개의 농가가 조합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다.

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1개의 학교에 급식을 납품하던 중, 마을기업에 선정된 이후, 2011년 2학기에는 납품학교가 20개교로 늘어났고, 매월 6,000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매출실적의 증대와 함께 6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친환경 쌀 재배단지에서 어린이 모내기 체험행사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경남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18개의 사업을 선정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마을 기업을 발굴하여 안정된 소득창출과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마을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나 지원의 의지는 높지만, 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이한일)는 시와 주요 납품처의 관리기관인 교육청의 유연한 커뮤니케이션과 적극적인 지원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 생활지원복지형 : 한구자리 채울

한구자리 채울은 결혼이민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돕고 울타리를 만들어 채워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활지원복지형 마을기업이다.

이 마을기업은 하동촌 참맛 알림이 사업으로 향토특산물을 활용하여 밀반찬 등 각종 먹을거리를 제조, 판매하여 영세농가의 판로를 개척하고, 이주여성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소비자의 건강한 식단 보급에 기여함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2011년 현재, 하동군내 다문화 이주여성이 중심이 되어 하동 공설시장 내에 음식점을 열어 운영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다문화 여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주 여성이 직접 일자리를 통해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시키며, 다문화가정 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장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성격도또한 가지고 있다.

현재, 대표를 포함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10명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결

혼이민자 여성들의 자국 음식과 지역향토자원인 산나물 등을 판매함으로써 공동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만 영업을 하고 있어 공동참여자들의 월 급여는 30만 원 수준에 해당되지만, 남은 음식으로 김밥을 만들어 이웃 상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으며, 향후,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족 등에 반찬과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환원사업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구자리 채울의 마을기업 사례에 대해 하동군에서는 다문화 이주여성의 문화 적응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문화체험 등의 기회제공을 통해 다문화 가정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2. 농어촌공동체회사

농어촌공동체회사의 경우, 4가지 공동체회사 유형이 있고, 각 유형별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는 각각의 공동체회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농식품산업형 : 강원 양양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농식품산업형에 해당되는 강원 양양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4월 영농조합으로 등록하였다. 2003년 정보화마을로 조성된 이후, 송천떡과 자연산 송이, 인진숙 가공식품 등 마을 특산물이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얻으면서 농가소득과 마을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거둬,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 장려상, 그리고 2010년에는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은 40여년 전부터 떡을 만들어 양양 5일장에서 판매를 하였고, 설악·구룡·오색·한계가 흘러보내는 깨끗한 물로 빚은 맛있는 떡을 팔아 소득을 창출하였었고, 정보화마을로 조성된 이후, 마을 내 부녀자들의 떡 생산 및 농산물 가공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17명의 지역주민을 고용, 참여하고 있다.

공동체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추진위원회-3개 위원회(정신분과위원회, 소득분과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와 같은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동체 회사 운영을 통해 2008년 매출액은 4.5억 원에서 2009년도에는 7억 원으로 약 1.5배 정도의 증가 효과를 거두었다. 떡 생산 종사자의 경우, 월 평균 170만원 소득 및 고령노인 3인은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해 창출된 소득 중 일부를 떡 생산에 참여한 고용인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여분을 마을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푸드뱅크에 기부함으로써 지역환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관련하여 양양군에서는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의 '전통민속 급랭떡 개발사업'을 추진(사업비 5,500만원: 국·도비 5,000만원 / 자부담 500만원)하였고, 자동 절단기와 진공포장기 등 제조공정을 규격화하는데 지원하였다.

그러나,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총무, 김성완)에서는 공동체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제조업이다 보니 세금 부담이 큼.
- 2010년기준 매출액 9억에 대해 부가세만 9천만원정도 납부.
- 노인복지센터 및 푸드뱅크에 기부하는 것들에 대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넓혀주면 좋을 듯 함.

2) 도농교류형 : 강원 평창 그린투어

강원 평창 그린투어는 평창군 체험마을 협의회, 농어촌 민박협의회, 레포츠협의회, 관광농원 협의회 등의 4개 민간 협의회가 참여하여 관광사업을 위한 키워드 광고, 마케팅 담당 사업을 추진하는 도농교류형 공동체회사로서 2009년 4월에는 사단법인, 그리고 2010년 2월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현재, 그린투어 사업단 비상근직 사업단장과 운영위원회(협의회별 대표로 구성된 12명이 감사, 고문 등의 역할), 사무국의 센터장과 산하 2개 사업부를 두고 있다. 즉, 「사업단장-운영위원회(협의회 대표 12인)-사무국(센터장)-커뮤니티 비즈니스/크리에이티브 킬러」 등과 같은 조직구조 하에 운영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는 마을단위 교육과 학습을 통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킬러에서는 농촌공감 문화만들기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국 운영을 위해 3인을 고용하였다.

지역사회주민들의 참여와 관련하여 회계는 협의회별로 관리하고 있지만, 협의회별 규모에 따른 회비 납부(연간납부금액 : 농촌체험 50만원, 농박 36만원, 관광농원 36만원, 레포츠 30만원)하고 있다.

지역 관광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여 2007년에는 135억 원, 2008년에는 194억 원, 2010년에는 289억 원의 매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출된 소득 중, 일부는 지역환원 사업에 사용되어지는데, 그 예로서는 불우 아이들에게 무료체험의 기회 부여, 농촌체험에 흥미가 없는 평창지역 아동들에게는 프로야구(두산베어즈와 협약), 농구(원주 동부 프로미) 관람 등을 지원한다.

지방정부에서는 평창군에 연 3억5천만원의 보조금과 협회에서 보조하는 호비로 사무

국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 평창 그린투어 공동체회사는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 그린투어 사업단의 경우 마케팅과 홍보로 성공적인 사례이지만 생산을 담당하지
- 현재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인력채용이나 예산부족으로 국가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매출 부족 등으로 심사에 통과하기 힘들.
- 특히 ‘공동체사업’의 경우 ‘자비부담’항목이 가장 어려운 과제임.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심사규정을 정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음

3) 지역개발형 :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통한 발전을 목표로 100% 마을 주민들이 출자하여 만든 법인을 기반으로 각종 농촌체험프로그램과 문화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개발형 공동체회사이다. 따라서 이 공동체 회사는 축제 및 체험학습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공동분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체 회사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37명을 상시고용하였고, 축제기간이나 성수기에는 추가적인 지역주민을 비상근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다. 즉, 축제기간에는 각종 행사 진행 및 안내활동을 전담토록 하고, 텃밭체험 및 펜션, 시설물 그리고 농작물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은 ‘칠갑산 알프스마을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을 중심으로 공동운영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2008년에는 34백만원의 매출, 2009년에는 130백만원의 매출, 2010년에는 480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특히, 2010년도의 매출액 중 1억5천만원은 지역주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한 가구당 약 4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활동으로 창출된 수익은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매년 알프스 마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공동체회사로서 알프스마을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정확한 사업성 조사를 통해 정부지원의 집중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4) 사회복지서비스형 :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사회 복지 서비스형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여민동락 할매손에서 떡을 판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상근 3명, 비상근 50여명)과 교통불편지역 어르
-------------------	----------------------	---

	지역사회 복지 수익원 창출과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수익원 창출	신들을 대상으로 목욕할 수 있는 이 동식 간이목욕탕 운영
--	--------------------------------------	------------------------------------

3.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2011년 10월 현재, 565개의 인증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충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E파트너센터, 그리고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충북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서 2010년 7월-9월까지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들 중, 해당 내용들을 발췌하여 각각의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주)휴먼케어

(주)휴먼케어는 청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에서 태동한 돌봄자활공동체와 사회서비스센터가 계승·통합하여 발전한 사회적기업이다. (주)휴먼케어는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주인되기, 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근로조건 향상, 창출한 이익과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돌봄서비스 제도·문화의 발전,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경제를 일구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2001년 7월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개소, 2007년 2월 부설 청원군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립, 2008년 3월 자활공동체 인정, 2008년 7월 사회적기업인가를 받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적기업이다.

현재, 총 9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취약계층은 40명이며, 총 종사자 중 정부등 인건비 지원 수혜자 수는 2명(전문인력)이 해당된다.

(주)휴먼케어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경영회의, 운영협의회, 노사협의회, 간부회의, 종사자 전체모임을 통한 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관, 운영규정, 대표(상근임원) 보수 등 복무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칙(근로조건), 회계 감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1,450,070천원으로 전체 수입총액의 98%이며, 정부 지원 금액은 27,717천원으로 전체 수입총액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창출된 수익은 사업 재투자(사업개발, 인프라, 위험대비 적립 등)에 50%,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금, 복지후생, 교육지원 등)로 10%, 지역사회 환원 10%, 모기관 지원 10%, 이익배당(주주 등) 10%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환원의 내용으로서는 이익잉여금내에서 조직 내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거나 ‘이용자 한마당’과 같은 행사를 개최하고 정기적인 직원교육행사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SE파트너센터(기술 및 정보지원 : 컨설팅), 도우누리(가맹점 업무협조), 사회적기업협의회(기술 및 정보지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경영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

(주)휴먼케어의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소유구조 확립, 경영구조 확립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측면에서는 사업영위에 필요한 자격취득,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한 취약계층의 부족,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 높은 지가 및 임대료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2) 일자리제공형 : (주)생명살림 올리

(주)생명살림 올리는 2008년 7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시작하여, 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를 창업하였고, 2008년 4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제공형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주)생명살림 올리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 기업운영에 있어 참여·공개·투명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육성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권을 존중하고,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국내 식품안전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문화를 이루고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여 도농 간의 연대와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다.

(주)생명살림 올리는 고용직 1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기업 소재지 내의 취약계층은 10명, 소재지 외의 취약계층 1명 등 총 11명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다.

(주)생명살림 올리는 다른 기업들처럼 총회는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이사회, 운영협의회, 간부회의 종사자 전체모임을 통해 기업의 주요 의결사항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총 수입액은 362,821천원이었다. 이중, 매출액은 172,804천원으로 총 수입액의 49%에 해당되며, 정부지원금은 184,576천원으로 총 수입액의 50%, 기타 수입이 5,439천원인 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출된 수입액은 사업채투자(사업개발, 인프라, 위험대비 적립 등)에 20%,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금, 복지후생, 교육지원 등)에 30%, 이익배당(주주 등)으로 20%,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에 30%정도를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환원의 내용으로서는 월 1회, 노숙자 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기관 등에 올리버거를 후원하였다. 그리고 ‘우리 콩 먹기’ 캠페인 등의 여론화 활동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교육과 시식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농협유통(서비스 및 제품, 원료 판매), 청원생명살림(원료, 중간재 구매), 행복담쟁이(서비스 및 제품, 원료 판매), 충청대

학 산학협력단(기술 및 정보지원) 등이 해당된다.

(주)생명살림 올리는 조직운영 측면에서 좋은 조직문화형성, 경영구조 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측면에서는 시설·장비 개선 및 확충, 생산성 개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부족, 사업기회의 부족, 납품·공급 등 기업 네트워크 부족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3) 지역사회공헌형 : (주)씨투넷

(주)씨투넷은 중고컴퓨터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실현, 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접근성 지원을 목표로 설립된 기업이다. 1999년 1월 초록세상을 설립하여, 2002년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하였고, 2004년부터 중고 컴퓨터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키르키즈스탄 등에 수출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형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이다.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총 5명이 전문관리직으로 고용되어 있으며, 이 중 취약계층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인이 해당된다. 조직운영에 있어 총회(회원/주주), 이사회, 종사자 전체모임을 두어 기업의 중요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실천하고 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수입액은 655,361천원이며, 정부지원금이 없어 기업매출에 의한 총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창출된 수익금은 사업재투자(사업개발, 인프라, 위험대비 적립 등)에 50%,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금, 복지후생, 교육지원 등)에 30%,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에 20%를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환원과 관련하여서는 자활후견기관 및 대안학교에 상시적으로 현물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는 정기적으로 현물 기여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자원과의 네트워크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주)정원씨엔엠을 통해 경영컨설팅을 받은 바 있고, 컨설팅 과정을 통해 충북지역 이업종협의회(300개소 중소기업협의체)와 연계하여 원료·중간재 구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주)씨투넷은 자체적으로 조직운영에 있어 조직의 정체성 확립, 인사관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상품)의 개발, 운영자금 확보, 원활한 원료 및 중간재의 구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혼합형 : (유)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는 2008년 12월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혼합형 기업이다. 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는 저소득층을 비롯해 취업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운영에 있어 참여, 공개, 투명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권 존중, 여성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지역사회의 사회적서비스를 확충,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민복지증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2005년 12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허가 받아, 2006년 3월에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2008년 9월 (유)영동군사회서비스센터를 설립하여, 2008년 12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유)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는 상근임원 1명과 생산직 24명을 포함하여 총 2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취약계층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3명이다.

(유)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는 총회(회원/주주), 운영위원회, 종사자 전체모임을 통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기업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정관, 운영규정, 대표(상근임원)보수 등 복무규정, 인사규정, 급여규정, 취업규칙(근로조건), 회계 감사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수입액은 126,092천원이다. 이중 매출액은 117,518천원으로 총 수입액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지원 금액은 8,574천원으로 총 수입액의 7%에 해당된다. (유)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사업재투자(사업개발, 인프라, 위험대비 적립 등)에 약 35%,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금, 복지후생, 교육지원 등)로 20%, 그리고 지역사회 환원에 45%를 이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가정에 밑반찬을 방문배달하고 있다.

지역의 협력기관으로서는 영동군 사회복지협의회(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 협력), 시니어클럽(기술 및 정보지원), 영동군(자금지원 및 동원) 등이 있다.

(유)영동군 사회서비스센터는 조직운영에 있어, 좋은 조직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업측면에서는 운영자금 확보, 기술력 및 품질향상, 그리고 역량 있는 인재 확보, 높은 지가 및 임대료의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IV. CB 추진 방식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1. 정책운영상 문제점

1) 정책의 유사·중복성

현재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은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침과 기준에 의한 공모제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자율적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 및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중앙부처별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정책이 역할분담이나 통합, 조정 과정이 없이 다양한 형태로 분산 추진되고 있다 보니, 행안부의 마을기업과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등이 대표적 중복사례로 성격이 매우 유사하게 보이는 것들이다.

2) 지원방식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나 사회적기업의 중앙정부 지원 방식은 인건비 위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진 방식은 한시적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자기자본 비중이 매우 작고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서 인건비에 대한 직접 지원방식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을 해치게 된다.

3) 지역의 잠재육구나 자원조사 미비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즉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원을 찾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역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표면화되지 못하고 잠재되어 있던 자원들을 찾아내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사업의 적실성과 동의를 얻게 된다. 이는 향후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추진방식이나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으로는 지역의 자원을 면밀히 조사하거나 지역주민의 육구를 발견할 만한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생기지 않음으로써 지역내 자원을 충분히 찾지 못하고,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부재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사례에 따라서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으로 공공서비스의 제공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중산층 및 젊은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인구의 사회 참여 확대를 이룰 수 있으며, 지역생활문화와 전통 예술의 자원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 제고와 환경보전,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성공사례로는 전통문화사업 모델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낸 '전주 한옥 생활 체험관' 지역내 생산되는 우리밀로 빵 만들기,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로 알려진 '순천시 주부 제빵단', 1986년 창립되어 역사를 자랑하는 '원주의 '한살림' 등이 꼽힌다. 이 밖에도 '고창 북분자 사업', '순창 장류 사업', '시니어 공동체' '향토 마을 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차별성있게 이루어지는 사업 이외에 대부분의 사업은 비슷한 유형의 체험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역의 자원을 면

밀히 조사하지 않은 가운데 나타난 것들로써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발전 방안

1) 지역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그 지역에 있는 문화, 환경,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목표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로부터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교두보로써 지역활성화 차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지향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향상해야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활성화될 경우 일자리와 소득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창출해야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내용이 장애인 생활지원, 지역 택시, 육아중인 어머니의 컴퓨터 등 매우 지역 밀착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업 내용은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지만 수익을 창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수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필요에 의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공급, 판매함으로써 지역 내 공생이 가능한 선순환구조를 유도한다(이자성, 2010). 이러한 사업은 지역 내 수요는 있으나 수익성이 그다지 크지 않는 서비스 및 경영활동이므로 이익분배 및 순수익 등의 경제성은 크지 않으나, 지역 소비자가 지역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2) 중간지원 조직의 기능강화

간접지원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을 활성화해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자생력을 배양해야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일반 기업체에 비해 경영기반이 취약하므로 경영자원(자금, 인재, 경영 노하우 등)의 중요성이 더욱 크지만 이를 지원해 줄 금융기관이나 컨설턴트가 없으므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은 기본적으로 시도 단위 또는 시도내 광역권별로 설치하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다수 활성화되어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특화형 조직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플랫폼 형태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되 전문적 서비스(금융, 법률, 교육, 경영회계, 마케팅 등)를 제공하는 컨설팅 조직과 mou 를 체결하여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연계화해야 한다(김선기, 2011:18).

일본의 경우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및 지원 중간 단체를 설립하여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자성, 2010). 특히 제도적으로는 지역비즈니스종합지원협의회는 지역내 민간기업가, 금융기관, 행정기관, NPO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모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및 방향성 제시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실제로 사업운명을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이나 조언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체계화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 적극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그 인재가 핵심이 되어 지역과 커뮤니티에서 CB를 만들어내야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통해 실천되어야 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근간으로 움직여야 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지역자원을 이용한 활동을 전개하는 인재들이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만들기와 중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지역의 복지에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네트워크의 구축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사회공헌활동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기업의 영○역 및 조직경영상의 노하우, 인적 자원등을 활용하고 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CSR의 파트너로 삼아 사회공헌활동을 원활하게 도모함으로써 지역에 밀착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는 제고하고 나아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발전해야 한다(김선기, 2011:20).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기업 및 인간관계를 이용한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신뢰를 통해 구축된 기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의 핵심이다.

4) 주민참여와 주민 교육프로그램 형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주체는 주민이어야 한다. 이는 주체는 지역에 사는 주민이고 주민, 기업, 자치단체 등 지역의 다른 부문들이 협동하기 위해 파트너쉽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주민의 참여이다. 주민 참여의식이 없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존재할 수 없다. 향후 지역사회의 운영주체는 주민 자치단체나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체제등을 구축해야 한다.

V.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의 기대효과 추정: 시스템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를 이용한 정책 시뮬레이션

1. 분석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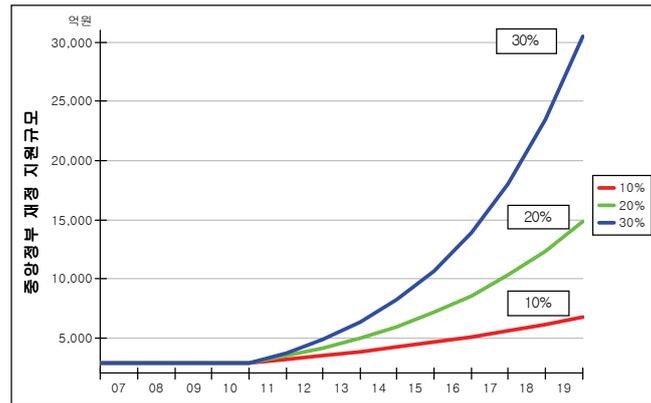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의 기대효과에 관련된 인과지도는 제 2장에서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계량 모형을 인과지도에 바탕을 두고 제시해 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CB 기대효과 추정치는 기본적으로 FGI 조사방법에 의한 전문가¹¹⁾들의 변수간 추론에 바탕을 둔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11년-2020년까지 10년으로 한다. 시뮬레이션의 초기치 값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재정지원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2,873.85억원이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예산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지원 예산,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 회사 사업 지원예산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역고용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21,620 명(사회적 기업 종사원+마을 기업종사원 추정치)으로 한다. 위의 두 변수외 나머지 변수들은 2011년 기준으로 기본값을 1로 한다. 즉, 2012년도에 개별지자체의 지원규모가 15% 증가한다면, 2012년도 값은 1.15가 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주요변수들 즉, 개별지자체의 지원규모, CB 중간지원기관 역량, CB에 대한 인지도, 지역특화사업발굴역량, 지역특화사업 수, 취약계층 취업가능성, 지역내 문제해결 정도, 지역고용, 지역발전 변수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 이 중에서 최종 목적변수는 지역고용 변수이다. 한편, 이 지역고용변수는 증가 패턴이 아래 <그림6>과 같이 S 곡선의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11) 커뮤니티 비즈니스 담당 공무원, 사회적 기업 지원기관의 실무팀장,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5명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

1) 중앙정부 재정지원 시나리오에 대한 지역고용 변동 추이: 매년 10%, 20%, 30% 증가시키는 경우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매년 10%, 20%, 그리고 30% 증가시킬 때의 재정지원 규모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아래 <그림 7> 및 <표 9>와 같다.



<그림 7> 시나리오별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모 변동 추이

한편, 연도별 시나리오별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변동을 추정해 보면 아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표 9>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모 계량치

중앙정부 재정 지원규모 (억원)				
Time	10%	20%	30%	
2007년 1월 1	2,873.00	2,873.00	2,873.00	2,873.00
2008년 1월 1	2,873.00	2,873.00	2,873.00	2,873.00
2009년 1월 1	2,873.00	2,873.00	2,873.00	2,873.00
2010년 1월 1	2,873.00	2,873.00	2,873.00	2,873.00
2011년 1월 1	2,873.00	2,873.00	2,873.00	2,873.00
2012년 1월 1	3,160.30	3,447.60	3,734.90	
2013년 1월 1	3,476.33	4,137.12	4,855.37	
2014년 1월 1	3,823.96	4,964.54	6,311.98	
2015년 1월 1	4,206.36	5,957.45	8,205.58	
2016년 1월 1	4,627.00	7,148.94	10,667.25	
2017년 1월 1	5,089.69	8,578.73	13,867.42	
2018년 1월 1	5,598.66	10,294.48	18,027.65	
2019년 1월 1	6,158.53	12,353.37	23,435.94	
2020년 1월 1	6,774.38	14,824.05	30,466.73	

2) 지역고용 변동 추이 추정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규모가 다양하게 변동 될 수 있다. 이는 정책적 고려 및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강화를 재정지원 규모 확대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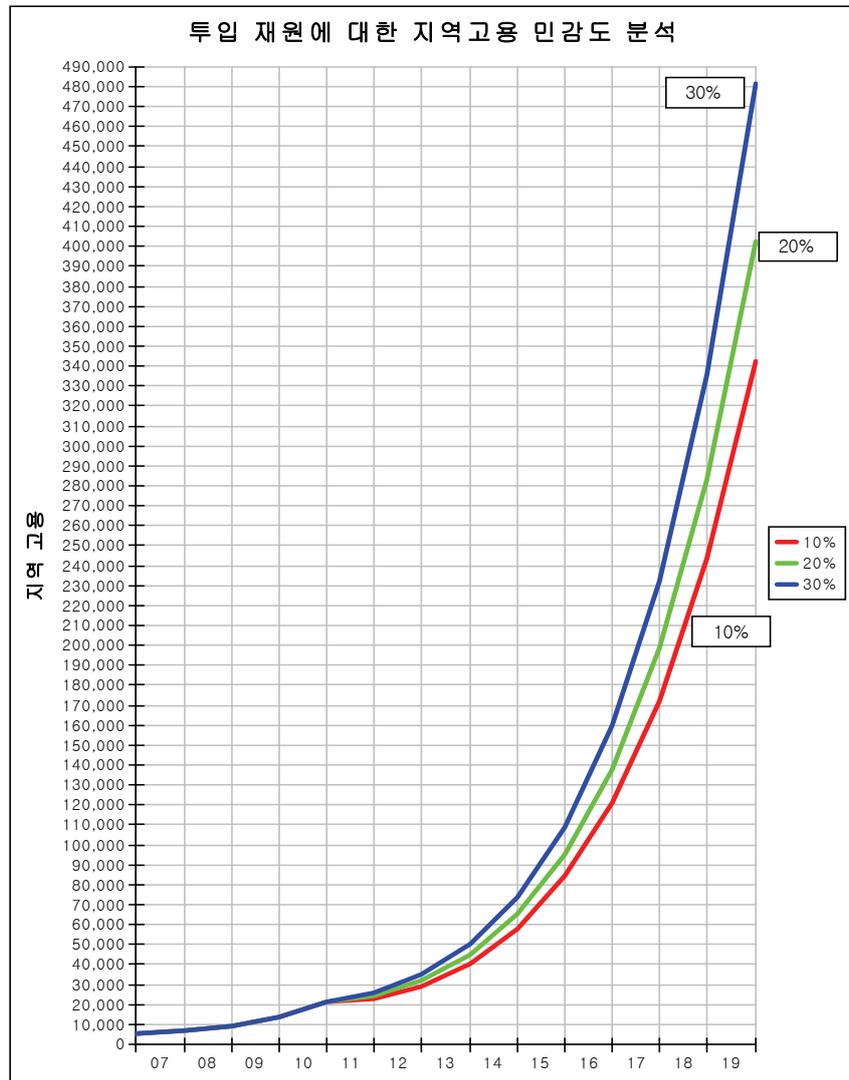
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현재보다 10%, 20% 및 30%로 변동했을 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고용 변동 규모를 추정해 보면 아래 그림 및 표와 같다.

<표 10> 시나리오별 지역고용 변동 시뮬레이션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따른 지역고용 및 지역발전 변동 시뮬레이션						
Time	지역 고용[10%]	지역 고용[20%]	지역 고용[30%]	지역발전[10%]	지역발전[20%]	지역발전[30%]
2007년 1월 1	5,000.00	5,000.00	5,000.00	0.24	0.24	0.24
2008년 1월 1	6,743.64	6,743.64	6,743.64	0.34	0.34	0.34
2009년 1월 1	9,536.60	9,536.60	9,536.60	0.49	0.49	0.49
2010년 1월 1	14,028.01	14,028.01	14,028.01	0.71	0.71	0.71
2011년 1월 1	21,289.96	21,289.96	21,289.96	1.02	1.02	1.02
2012년 1월 1	22,796.25	24,392.84	25,989.43	1.16	1.20	1.25
2013년 1월 1	28,797.46	31,747.72	34,958.86	1.42	1.50	1.59
2014년 1월 1	40,009.78	44,612.09	49,936.30	1.80	1.92	2.06
2015년 1월 1	58,074.35	65,224.58	73,823.42	2.44	2.63	2.85
2016년 1월 1	84,139.65	95,291.11	109,034.97	3.36	3.65	4.00
2017년 1월 1	120,807.72	138,073.55	159,771.78	4.64	5.09	5.64
2018년 1월 1	172,026.33	198,455.58	232,272.58	6.42	7.10	7.96
2019년 1월 1	243,330.88	283,348.02	335,454.98	8.86	9.89	11.22
2020년 1월 1	342,340.80	402,371.67	481,907.30	12.21	13.76	15.80

한편, 위의 결과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보면 아래 <그림 8>과 같다. 즉, 2012년에 10% 증가시키는 경우, 지역고용규모는 22,796명으로 증가되고, 2020년에는 342,340명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 재정 20%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2012년도에 24,392명, 그리고 2020년에는 402,371명으로 증가되고 30% 증가시에는 2012년도에 25,989명, 그리고 2020년에는 481,907명으로 증가된다.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 규모를 현재보다 10%, 20%, 그리고 30% 증가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역고용 규모는 다양하게 증가한다. 그러나, 정책적 판단을 통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을 통하여 창출하고자 하는 지역고용 규모에 대한 최종 목표치를 정해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별 정책기대효과 추정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8> 중앙정부 재정지원 연간 증감률 {10%, 20%, 30%} 에 대한 지역고용 변동 추이

VI. 결론

본 연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정책의 시나리오별 기대효과 추정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사례를 통하여, 이 정책에 대한 개념과 유사정책과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현재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은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역고용창출 및 지역문제의 지역적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생각된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정착단계까지는 꼭 필요한 바, 이러한 재정지원 규모의 다양한 증가시나리오를 통하

여 지역고용 창출규모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인과관계속에 있는 중요 정책변수들의 조정을 통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 추구하는 일자리 수를 추정해 보고자 하는 것은 정책결정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10%, 20%, 그리고 30% 증가라는 시나리오별로 지역고용 창출 규모를 연도별로 추정해 본 결과, 10% 증가시에는 2020년에 342,340, 20% 증가시에는 402,371명, 그리고 30% 증가시에는 481,907명의 지역고용 창출자 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별 정책수단의 선택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0). 「201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매뉴얼」.
- 국토연구원. (2009).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 권홍재.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의 민관협력에 의한 지역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김성진. (2010). 장애인의 노동통합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고찰. 「장애와 고용」, 22(4): 299-322.
- 김영수 외. (2008).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지식경영연구」, 9(1): 77-96.
- 김윤호. (2010).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1(1): 275-299.
- 김혜민. (2010).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24(3): 171-195.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어촌 활력의 중심, 농어촌 공동체회사가 뜬다(보도자료)」
- _____. (2011). 「농어촌 공동체회사란?: 농식품부, 농어촌 공동체회사 55개 사례 소개(보도자료)」
- 박종안. (2011).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성공모델에 관한 사례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지역사회서비스 발전동향 분석 및 시사점 연구」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 활성화, 「issue paper」.
- 안혜원·이민규. (2010).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도입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82-201.
- 이민규. (2011). 지방재정극복을 위한 CB 도입방안. 「국가위기관리학회 학술대회논

- 문집」 373-378.
- 이석표. (2009).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책과 한국에의 도입방안.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이세호. (2007).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한국창업학회지」, 2(2): 87-104.
- 이연호 외(2011). 지역별 사회적기업 결정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개발연구」, 11(1): 1-35.
- 이자성. (2010). 일본 지역공동체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와 커뮤니티 비즈니스.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468-1486.
- 정대용 · 이세호. (2008).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에 관한 선진사례 고찰과 국내 활성화 방안. 「한국창업학회지」, 3(1): 91-116.
- 조규원 외.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정당성. 「도시행정학보」, 24(1): 263-281.
- 진영환 · 김진범. (2010). 도시재생과 커뮤니티 비즈니스. 「국토연구」, 65: 181-196.
- 최영출. (2010). 시스템사고를 활용한 지역교육청 기능전환정책의 정책지렛대 분석.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1(1): 89-109.
- _____. (2008). 커뮤니티 재생 거버넌스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12(2): 185-214
- _____. (2011). 우리나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 제587회 「정책 & 지식」 포럼 발표논문
- 충청북도. (2011). 「충청북도 자립형 공동체 모델개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정책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KRILA Focu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6: 1-20.
- 행정안전부. (2011). 「마을기업 시행 지침」.
- Alter, S.K. (2002). *Case Studies in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Experience*. London: Routledge.
- Borzage, C. & Defpirmu. J. (2001). Conclusions: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Adversity of Initiatives and Prospects. In C. Borzage & J. Defourny (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Dees, J.D. et al. (2001). *Enterprising Nonprofit : A Toolkit for Social Entrepreneurs*. John Wiley and Sons.
- Elshobagy, A., Jutia, A., Barbour, L. and Kells, J. (2005). System Dynamics Approach to Assess the Sustainability of Reclamation of Distributed Watershed.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32.

Matthew, S. (2004). *Enduring Change : The Experience of Community Links Social Enterprise Zone: Lessons Learnt and Next Steps*. Bristol, UK: Policy Press.

OECD. (1999). *Social Enterprises*. OECD.

Pidd, M. (1998). *Computer Simulation in Management*. N. Y. : Wiley.

Sterman, J. D. (2001). System Dynamics Modelling: Tools for Learning in a Complex World.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43, No. 4.

접수일(2011년 11월 15일)

수정일자(2011년 11월 28일)

게재확정일(2011년 12월 12일)